“일상을 예술로… ‘나다움’ 찾기위해 도전”

광주문화재단을 떠나 1인 크리에이터로 도전을 시작한 ‘일상예술 사이 연구소 ‘구름’’의 이유진 소장.

평소 다니던 직장을 떠나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우리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상은 매일의 삶이며 일상성은 매일 살아가는 실존의 양식이지요.”

이유진 전 광주문화재단 팀장의 첫 마디였다. 얼마 전 문화재단에서 나와 1인 크리에이터를 시작한 그는 이전과 달리 홀가분해보였다. “무엇보다 ‘나다움’을 찾고 지킬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는 말은 대다수 직장인들의 근본적인 고민을 스스로 해결했다는 뜻으로 다가왔다.

최근 광주 상무지구에 일상예술 사이 연구소 ‘구름’을 오픈하고 1인 크리에이터의 삶을 시작한 이유진 소장. 문화재단에서 정책연구교류팀, 문화예술교육팀, 도시문화교류팀 등 문화와 예술, 교육 관련 다양한 업무를 맡았기에 이번 도전은 그에게 그다지 낯설어 보이지 않았다.

“평생 현역으로 즐겁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잘 할 수 있는 것, 세상에 필요한 것 그리고 먹고 살 만큼의 돈을 얻기 위해 1인 크리에이터 활동이 내게 만족을 줄 것 같았어요.”

이 소장이 상정하는 일상은 ‘우리 각자의 삶을 예술 작품화 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도시 사회학자 앙리 르페브르의 통찰에서 빌려온 개념이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반복되는 일상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지겨워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면서도 그 일상을 놓칠까 불안해하는 게 ‘일상’이다.

이 소장은 구체적으로 ‘일상예술 산책’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가와 현장에서 만나 의견을 나누고 이를 콘텐츠화 할 뿐 아니라 미술관, 문화카페 등 다양한 문화공간과 연계해 일상 예술의 중요성을 기록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작업은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워크 방식으로 진행한다. 노트북이나 스마트 폰 등 디지털 기기와 줌을 통해 온라인 활동을 전개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사무실을 연대와 공유을 상정한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연구소 이름을 ‘구름’이라고 한 것은 일상과 예술 사이 곳곳을 구름처럼 자유롭게 다니자는 뜻에서 착안했습니다. 일상이 예술 안으로 들어가 ‘일상생활 속 미학’을 되찾자는 의미이지요.”

이 소장은 얼마 전 광주 동구청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매니저를 맡아 저마다 다른 분야에서 활동해온 이들의 삶을 기록했다. 일종의 일상 아카이브로, 거시적인 기록이 아닌 미시적인 기록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도 ‘일상아카이브’ 등과 같은 사소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의미있는 작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이 소장은 ‘브런치 카카오톡’ 글쓰기 플랫폼에 ‘한번 더 쓸모’라는 주제로 글을 올리고 있다. 어떤 물건이나 사물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닌 그것을 문화와 예술로 연계해보자는 취지다. 그는 “한 예로 한라봉 껍질을 버리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이지만 이것을 이용해 디퓨저를 만들면 향기로 전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도전이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문화의 영역을 조금씩 확장해보고 싶은 바람이 있다. “문화란 가치관, 신념, 삶의 방식 등 삶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과 연계해 크리에이터란 ‘나다움’을 찾기 위해 도전하며, 세상에 숨결,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아닐까 싶네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역문화재정 확충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를”

문화재단연합회 ‘정책포럼’서 5개 정책·15개 과제 인수위에 제안

지역문화재정 확충을 위해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와 국비를 포괄적으로 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일회성, 프로젝트 방식의 지원에서 벗어나 다년간 집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한광연, 회장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전지연, 회장 박상언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는 지역 문화재정 확충 등 5개 정책 목표와 15개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안할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한광연과 전지연은 27일 광주문화재단에서 열린 ‘지역문화 정책포럼’에서 인수위에 전달할 지역문화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지역문화 정책포럼’은 문화예술계 의견수렴과 담론 형성을 통해 지역문화재단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들 단체들은 제안서에서 “김대중 정부 이후 문화정책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왔으며 ‘향유에서 참여로’, ‘집중에서 분산으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문화민주주의 시대로 전환됐다”며 “지역문화생태계와 선 순환하는 지역문화정책이 제대로 입안될 때 지역문화가 되살아나고 문화국가로서 위상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한 부분은 지역문화재정 확충이다. 여기에는 지방문화세 신설 편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조정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 11%인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세입 미과세 대상에 과세 확대 등이 포함됐다.

문화자치 기반 구축도 중요한 정책 과제다. 한광연과 전지연은 참여형 문화정책 생태계 조성과 문체부 산하기관 역할 재조정을 통해 공모사업 및 기관 간 중복사업 축소와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재단 위상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들 단체들은 한광연과 전지연의 통합연합회 법제화를 제안했으며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브랜드 사업 지원도 요청했다.

공정하고 다양한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과 사람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 일회성, 공모방식보다는 다년간 예술인 지원 및 집중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문화시민 육성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확대와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확대도 중요 과제에 포함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공연장지원단체지원사업으로 펼쳐진 비상무용단의 공연 장면.

주민현 시인 ‘그림 없는 미술관’, 시산맥작품상 수상

시문학상엔 김대호·이령 시인

시 전문지 계간 시산맥이 주관하는 ‘제12회 시산맥작품상’에 주민현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그림 없는 미술관’이며 상금은 300만원.

계간 시산맥은 올해의 시산맥작품상에 주미현 시인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산맥작품상은 지난 한 해 ‘시산맥’에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 추천된 시산맥작품상 후보 중 11작품도 심사 대상이었다.

심사를 맡은 이규리·유종인 시인은 수상작에 대해 “‘그림 없는 미술관’은 미답(未踏)을 향한 긍정의 시그널로 답하는 열정의 페이소스이자 그 온전함을 열어가고자 하는 간원의 역설로도 읽혔다”며 “한 소식 한 그림을 얻기까지 시인은 얼마간 지적 망설임을 사랑했는지모르겠다”고 평했다.

주민현 시인은 2017년 ‘한국경제신문’ 시 부문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킬트, 그리고 퀼트’가 있다.

또한 ‘제12회 시산맥 시문학상’(200만원) 수상자로 김대호 시인과 이령 시인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작품은 각각 ‘고비의 배후’, ‘사사로운 별’. 심사는 시산맥회원 28명이 참여해 결정했다.

주민현 시인

김대호 시인

이령 시인

김대호 시인은 2019년 천강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우리에겐 아직 설명이 필요하지’가 있다. 이령 시인은 계간 ‘시를사랑하는사람들’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으며 웹진시인광장 부주간을 맡고 있다.

한편 전국 시산맥 행사가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강호 화랑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강희정 시인에게 시산맥 등단패가 수여된다. 문의 010-8894-872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의 버킷리스트’ 아트벨라 하우스콘서트

5월1일 아트벨라 공연장

제2회 아트벨라 하우스콘서트 ‘꿈을 꾼다’가 ‘나의 버킷리스트’를 주제로 오는 5월 1일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동명동 아트벨라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무대에 오르는 연주자들은 50세 이상의 음악을 사랑하는 아마추어들로, 직접 콘서트 무대에 지원했다.

바리톤 이강의 ‘Nella Fantasia’ 무대를 시작으로 이정자·이양자·장영자가 플룻중주로 ‘아름다운 것들’, ‘희망의 속삭임’을 들려준다.

소프라노 한미경은 ‘또 한송이의 나의 모란’, 첼로 김채은이 ‘무반주 첼로 조곡 1번 1악장(플렐류드)’를 연주한다.

이어 바리톤 양인호가 ‘산아’를 연주하며 최성규가 ‘yesterday’와 ‘habanera’를 클래식 기타로 연주한다.

소프라노 김영미는 ‘O mio babbino’, ‘수선화’를 박원, 국경완으로 구성된 트윈폴리오는 ‘축제의 노래’, ‘더욱더 사랑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박수아·장미정·문은주·최인종은 함께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아름다운 사람’을 밴드와 함께 연주한다.

이번 무대에는 백주영의 하모니카 연주가 특별 공연으로 마련됐다. 백주영은 ‘베사메무쵸’, ‘봄날은 간다’, ‘안동역에서’를 들려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